

치욕과 고통, 불행으로 얼룩진 미군강점하의 76년

미군이 저지른 각종 범죄 20여만건

미국의 남조선강점사는 인류 역사에 보기 드문 가장 야만적인 범죄의 역사로 얼룩져 있다. 극도의 인간중요상과 야수성으로 길들여진 미군이 기여한 때로부터 수십년동안 남조선에서는 어느 하루도 피가 흐르지 않은 날이 없었고 인민들이 불행과 죽음을 당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 인디언의 머리가죽 한장에 150US\$를 걸고 수백만명을 멸족시키기 위해 날뿜 살인마들의 후예들이 남조선에서도 인간살상을 제 마음대로 했다. 나물개는 소녀가 《쟁》으로 되고 나무하던 농민이 《노루》가 되고 길가던 학생이 《토끼》가 되는 등 남조선인민들이 미군에게는 인간과녀, 사냥대상이었었고 남조선땅은 《인간살상터》, 《자유사격장》, 《살인숙련장》으로 전변되었다. 1957년 군산소녀총격사건, 인천송유관어린이사살사건,

1958년 부평소년직송기적사건, 1959년 의정부녀인벙끼칠사건, 1960년 동두천녀인사발사건, 1962년 파주나무군사살사건, 1981년 총기란사사건, 1992년 윤금이살해사건, 1997년 리태원햄버거가게살인사건, 2000년 리태원의국인전용클럽 녀종업원살인사건, 2002년 심미선, 신희순학살사건, 2013년 서울총기란동사건... 이것은 남조선강점 미군이 저지른 치명적인 범죄행위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언제인가 남조선의 한 출판물이 《미군은 이남전체가 사격장이고 움직이는 사람들 모두가 표적인줄 아는지 특별한 사람을 쏘아죽이고있다》고 개탄한것은 미군에 의해 인간살상장으로 전락된 남조선의 비참한 현실을 그대로 실증해준다. 몇몇전 남조선당국이 줄여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해방후 남조선강점 미군이 저지른 살인, 강도, 강

간을 비롯한 각종 범죄는 무려 23만건에 달한다고 한다.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도 미군은 그 어떤 처벌도 받지 않으며 치외법권적인 존재로 행세하고있다. 오래전에 심미선, 신희순 두 녀중학생을 백주에 길가에서 장갑차로 깔아뭉개고 살인자를 미군으로 빼들려 남녘인민들의 분노를 사고 온 남조선땅이 반미의 초콜바다로 되었던것은 세간에 잘 알려졌다. 장구한 인류력사에는 강점군에 의한 범죄행위가 수없이 기록되어있다. 하지만 남조선강점 미군처럼 인민들에게 그토록 잔인하고 악독하게 불행과 고통, 죽음을 강요한 범죄집단은 동서고금에 없을것이다. 강도가 살판치는 곳에서 사람들의 피가 마를새 없듯이 미군이 남조선에 남아있는 한 남조선인민들이 당하는 불행과 재난은 절대로 가서질수 없다. **본사기자 주광일**



1957년 7월 인천에서 퇴방유도적으로 몰아 어린이를 학살한 미군야수들



2002년 6월 미군장갑차이 찢어죽은 두 녀학생, 미군의 범죄만행으로 불구가 된 남조선주민들

《과연 누구를 위한 (군사동맹)인가. 자국의 군사적목표와 이익을 위해 점령지민중의 혈세를 불법강탈하고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는 미국을 규탄한다. 이것은 언제인가 남조선의 한 인사가 내놓은 울분의 목소리이다. 미군에 있어서 남조선은 한갓 저들의 탐욕을 만족시켜주는 약탈의 대상이고 마음내키는대로 빼앗아먹을 수 있는 식민지일 뿐이다. 저들의 침략적목적에 따라 남조선을 장기간 강점하고있으면서도 수만명 미군의 유지비용도, 남조선전역에 등지를 틀고있는 수많은 미군기지와 군사시설들에 대한 관리비용도 다 남조선당국에 압을 가해 남조선인민들의 혈세로 충당하고있다. 그 엄청난 돈도 모자라 미국은 남조선을 강박하여 《방위비분담금》규모를 해마다 늘여왔으며 그렇게 강탈한 혈세로 미군기지를 확대하고 전쟁연습을 광란적으로 벌리는 한편 박물관, 식

당 등 건설비용을 벌려놓고 리자놀이까지 하면서 저들의 배를 불리워왔다. 이렇게 남조선인민들의 혈세를 《용돈》처럼 몰수해 소비하면서 《안보유익증착》을 운운하면서 남조선이 《방위비분담금》을 더 내야 한다고 눈을 부라리며 강박을 하는 미국이다. 하여 지난 2009년에 7 600억원이었던 《방위비분담금》이 해마다 늘어나 올해에는 1조 1 833억 원에 이르렀으며 2025년에는 5 000억원으로 늘어날것이라고 한다. 남조선인민들이 말하듯이 미국은 《동맹국》이 아니라 강도이다. 불행적이 남의 집에 뛰어들어 자기 《덕》에 편안함을 알라고 눈앞을 부라리고 그 대가로 돈을 더 내라고 고아대는것이야말로 미국식외망성의 극치이며 이러한 횡포는 오직 남조선에서만 볼수 있는 기막힌 현실이다. 사실들은 미국이 운운하는 남조선과의 《동맹》이란 등 쓸어주며 간이고 쓸개고 다 뺏아먹으려는 지배의 율가미, 약탈의 그물이 라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은 언제까지 침략자, 남강도에게 땅을 메주고 주권을 빼앗긴것도 모자라 혈세를 섬기고 뒤처닥거리까지 도맡아하는 현대판노예노릇을 해야 하는가. **자은혜**

남조선은 미국에 군통수권마저 빼앗긴 불우한 처지에 있다. 조선전쟁이 시작되어 한달도 안된 1950년 7월 15일 미국과 리승만 《정권》사이에서 남조선 《특혜공군작전권이양》에 관한 공한》(《대전협정》)이 체결되었다. 이 《협정》에 의하여 남조선군은 전부 《유엔군사령부》의 작전지휘하에 넘어갔으며 그 통수권은 《유엔군사령관》의 간관을 쓴 미국동군사령관의 손안에 장악되게 되었다. 남조선미국 《연합군사령부》라는것도 명색이 《연합사령부》이지 실지에 있어서는 남조선군에 대한 통수권을 미국의 손안에 철저히 장악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도 남조선군대에 대한 실질적인 통수권은 미국이 들어주고있다. 남조선 각계층의 한결같은 요구에도 불구하고 전직작전통제권을 미국이 들어주고 있다. 미군제무기로 무장하고 미국의 승인이 없는 단 한명도 제 마음대로 움직일수 없는 군대, 미국의 대조선전략과 아시아지배전략 실현에 복무하는 군대가 다름아닌 남조선군이다. 현실은 남조선에 대한 미군의 강점이 계속되는 한 남조선군은 언제 가도 식민지고 남조선군의 수척스러운 오명을 벗을수 없으며 미국에 종속된 남조선의 처지도 달라질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박철남**

전을 총괄하는 부사령관을 맡게 되어있다는 사실 등은 미국이 말하는 전직작전권반환이라는것이 빈말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미군제무기로 무장하고 미국의 승인이 없는 단 한명도 제 마음대로 움직일수 없는 군대, 미국의 대조선전략과 아시아지배전략 실현에 복무하는 군대가 다름아닌 남조선군이다. 현실은 남조선에 대한 미군의 강점이 계속되는 한 남조선군은 언제 가도 식민지고 남조선군의 수척스러운 오명을 벗을수 없으며 미국에 종속된 남조선의 처지도 달라질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박철남**

미군에 빼앗긴 군 통수권

한사코 넘겨주지 않고있지만 보아도 잘 알수 있다. 최근 미국이 《유엔군사령부》의 권능을 확대하여 남조선군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하려는 기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내고있는 사실, 앞으로 내오려고 하는 《미래연합군사령부》에서 미군대장이 작

남조선언론이 주장 《미국을 믿지 말라》

얼마전 남조선언론 《민플러스》는 《미국을 믿지 말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요즘 미국을 못 믿겠다는 말이 류행처럼 번지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야밤도주하다싶이 매주한 미국을 보고 하는 소리다. 미국은 자기 리익밖에 모르고 믿을수 없는 나라라는 인식이 삼시간에 국제적으로 확산되었다. 한국과 아프가니스탄은 다르다. 아프가니스탄은 20년

환경 파괴 범죄의 온상 - 미군기지

남조선에서 곳곳에 독가 시마냥 박혀있는 미군기지들에 의해 인민들은 기름진 땅과 삶의 보금자리를 빼앗기고 산천마저 생기를 잃고 죽어가고있다. 미군의 환경파괴범죄로 하여 미군기지와 그 주변은 완전한 오염지대, 공해지대로 화하였다. 미군기지들과 그 주변지역은 강점군이 내버린 폐유와 각종 화학물질, 중금속 등에 오염되어 풀 한포기도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불모지로 변하였고 주변의 강하천 역시 먹는물은 물론이고 농업, 농업용수로도 리용할수 없는 지경이라고 한다. 뿐만아니라 미군은 고염제를 비롯한 독해물까지 살포하였고 심지어는 극악무도한 세균전설

범까지 감행하여 남조선인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있다. 올해 남조선의 환경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미군으로부터 넘겨받은 대구의 직송기착륙장과 남강원도 사격장의 환경오염은 매우 심각했으므로 나타났다. 대구지역의 직송기착륙장은 1급발암물질인 비소, 디옥신, 염화비닐, 클로르포름, 벤젠 등의 독성물질에 오염되어 사람들이 암에 걸릴 확률은 정상기준(10만분의 1)을 훨씬 초과했다고 한다. 남강원도 녀령군의 사격장에서는 지하수에 벤젠, 에틸벤젠, 나프탈렌, 톨루올 등의 독성물질이 다량 포함되어 지역주민들이 암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며 각종 질병에 걸릴 확률도

51배로 초과되었다고 한다. 그런데도 미국은 저들의 환경파괴범죄에 대해 사죄하고 배상할 대신 불평등한 《행정협정》을 내두고 그 비용을 고스란히 남조선에 떠넘기고있다. 단순히 한세대만 경과하는 땅이 아니라 자자손손 이어갈 삶의 보금자리, 귀중한 재부인 강토가 강점군, 침략자에게 빼앗기고 그들이 배설한 독성물질에 의해 황폐화되고있는것이다. 해방은 삼천리에 함께 찾아왔으나 미군의 강점으로 자주, 민주, 희망의 봄을 빼앗긴 남조선에서 《지금의 남의 땅-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시의 구절이 오늘날 슬픈 메아리로 울리고있다. **본사기자 안권일**



랑립될수 없는 평화와 미국

제목은 보면 이런 의문이 떠오를수 있다. 평화와 전쟁이 공존할수 없는것이 아닌가. 그럴수 있다. 자료에 의하면 B.C. 3200년부터 1964년까지의 5 164년 기간에 세계적으로 도합 1만 4 513차례의 전쟁이 일어났고 인구는 329년동안만 평화롭게 살았다고 한다. AP통신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800차례의 국부전쟁이 일어났다고 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인류력사는 전쟁의 역사, 평화에 대한 갈망의 역사라고도 말할수 있다. 1950년 미중유의 조선전쟁을 겪었으며 총포성 울리지 않는 반세기이상의 긴장속에 불안과 공포를 사는 우리 민족은 서슴없이 락인한다. 미국은 곧 전쟁, 전쟁은

곧 미국이라고. 1945년 9월 8일, 해방의 감격으로 뿔뿔이던 남조선에 미강점군이 기여들었다. 미국의 룹락으로 분열된 땅에서 미국이 강요한 조선전쟁이 일어났으며 그들의 강권과 팽창야욕이 분열의 70여년을 전쟁위험의 날과 달로 이어놓고있다. 지금도 미군이 강점한 조선반도의 남쪽에서는 위임없이 《전쟁광상곡》이 울린다. 조선반도의 북쪽을 향한 땅크소리, 비행기소리, 총포소리 등이 불협화음을 이루면서 새로운 전쟁유령을 부른다. 미군이 깔고뭉개는 기지들마다에서 산천이 황폐화되고 사람들이 죽어가고있다.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남조선인민들의 절규는 《미

국없는 시대》, 《미국없는 땅》이다. 민족성원 누구나 미국은 전쟁의 온상, 평화파괴의 주범, 통일의 기본장애물임을 똑똑히 인식하고있다. 누군가가 《미국을 발견하지 않았다더라면 더 좋았을것》이라고 한것이 정말 좋았다. 《서민》호의 침입으로부터 침략자로 인식된 미국은 근대와 현대를 거치며 악의 화신, 불행의 화근으로 우리 민족의 뇌리에 박혀있다. 미국은 곧 전쟁이고 평화와 미국은 량립될수 없기에 남조선인민들을 비롯한 우리 민족은 목소리높쳐 웨치고 또 웨치고있다. -미국은 이 땅에서 당장 물러가라!- **본사기자 김정혁**